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7/12℃ 목포 7/10℃ 여수 6/10℃
단기 4343년 (음력 12월 2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96호 1판 2010년 2월 9일 화요일

광주 도시 재개발 문제있다

미분양 수두룩한데도 초고층 아파트 계획 일색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 등 광주시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예정구역 지정은 되레 늘고 있다. 이들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대부분 50층이 넘는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광주 도심 전체가 초고층 빌딩 숲으로 변질돼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올 정도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같은 예정구역 증가로 인해 사업대상지는 광주시 전체 주거지역 면적 7천476만㎡의 11.8%인 880만6천24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공동주택으로 개발된 부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단독주택지역이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지난 2005년 수립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모두 141곳이었으나, 최근까지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 5곳이 늘어난 146곳이 지정된 것이다. 올해 말 수립을 앞두고 있는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도 예정구역을 더 확대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구역 75곳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8곳에 불과하다. 이외 상당수 지역은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은 33곳 중 계림 5-1구역 1곳만이 사업이 완료됐을 뿐 나머지 14곳은 사업시행인가나 정비구역 지정단계, 18곳은 추진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건축은 예정구역 19곳 중 운암1구역 등 3곳만이 준공됐고, 4곳이 사업시행인가 및 정비구역지정, 12곳이 추진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는 16곳 중 4곳만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을 뿐이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현황 (2010. 2. 8 현재)

구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유형유보	주거환경개선
준 공	1	3	-	-	43
공사중	-	-	-	-	11
사업시행인가	1	1	-	-	5
정비구역지정	13	3	4	-	2
준비중	18	12	12	7	10
소 계	33	19	16	7	71
합 계			146		

이에 따라 도심 내 노후 주택지 및 상업지역에 대해 민간투자 방식에 의한 개발보다는 공공과 민간의 합동개발방식 또는 공공투자 방식의 확대 등 정책적인 전환을 통해 이 같은 공동주택 설립 위주인 도심 개발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사업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주택 유형 도입, 원주민 거주 지속 대책 수립, 도심 경관 고려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이외에 택지개발 등으로 개발예정지는 구도심 면적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라며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교통체증, 열섬현상 등 환경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 림

완주의 쾌감을 위해…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접수 서두르세요

문의 : 062) 220-0541
kjmarathon.co.kr

光州日報社

봄 부르는 홍매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8일 순천시 매곡동의 한 주택가에 홍매화가 활짝 꽃을 피웠다.

/순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민위원회 금명 구성 야구장 문제 맡기겠다"

박광태 광주시장 밝혀

광주시가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획을 수립한 뒤 민간위원회가 유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민자유치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반복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난항을 겪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새 야구장 건립 및 스포츠·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우선 이 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3면〉

광주시는 또 45년 된 무등경기장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오는 6월2일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야구장 건립 방안 마련하도록 시민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8일 포스코 건설의 돔구장 사업 포기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향후 대규모 민자유치사업과 관련 시가 계획을 세우고, 각계각층의 시민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민자유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각계인사 20명으로 '광주 야구장 건립 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새 야구장 건립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돔구장·개방형 야구장·무등경기장 리모델링 등의 방안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게 된다.

박 시장은 이날 "일부 정치권에서 차기 시장에게 야구장 건립문제를 차기로 넘길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금명간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낡은 무등경기장을 대체할 새 야구장을 하루빨리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또 돔구장과 함께 2조원대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향후 3~4년 내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스포츠·관광·레저단지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방식이나 재원 조달 방향 등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공공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 포스코건설의 제안 포기를 계기로 민자유치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지역의 미래성장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금호家 계열사 분리경영

사재출연 합의…석유화학-박찬구, 산업·타이어-박삼구

지역경제계 "노사 전향적 자세로 회사 살려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오너별로 계열분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주회사격인 금호석유화학은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차남과 4남 가계에서 공동경영하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3남 가계에서 맡기로 했다.

금호그룹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8일 오너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의결권 및 처분권 위임 동의서를 채권단에 넘기겠다는 합의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룹 오너 일가가 계열사들을 분리 경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8면〉

지주회사격인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전 화학부문 회장 부자와 박철완 그룹 전략경영본부 부장이 경영을 맡는다. 박철완 부장은 고(故) 박정구 명예회장 장남이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그룹 명예회장이 경영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과 나머지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채권단 협의 등을 통해 추후 경영 주체를 결정키로 했다.

금호그룹 전체에 대해서는 박삼구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남게 된다.

이처럼 3개 가계가 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금호그룹은 계열 분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채권단은 당초 계획대로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서가 제출되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등 4개 계열사들의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금호그룹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큰 그림을 마련하고 내달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너 일가가 사재 출연을 결심함에 따라 노조 또한 '동의서 제출'이라는 부담에 시달리게 됐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0일 오전 10시 광주공장 내 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 측의 구조조정안과 노조 동의서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입장이다.

광주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이 이뤄진만큼 노조도 동의서를 제출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협력업체들에게 긴급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며 "회사 측도 일방적인 노조 희생보다는 단계별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사 모두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을 중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요경력

변호사 김 관 재 올림

업무개시 : 2010. 2. 9.
업무장소 : 광주 동구 지산동 [illegible] 동신빌딩 3층
대표전화 : (062) 229-0001 팩스 (062) 229-0004
개업소연 : 2010. 2. 26.(금) 17:00부터